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난임부부 지원으로 2025년도 48,981명 태어나

- 가임력 검사부터 심리·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병행으로 통합적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한 해 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하 ‘난임지원사업’)*을 통해 출생한 아동 수가 48,981명(전체 출생아의 19.2%)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7,276명 대비 11,705명(31.4%)이 증가한 수치이다.

* 건강보험으로 출산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체외수정 20회)까지 급여 적용(본인부담 30%), 지방자치단체는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수준까지 지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난임지원 출생아(A)	17,720명	21,219명	23,122명	26,612명	37,276명	48,981명
증감(%)	(-)	(+19.7%)	(+9.0%)	(+15.1%)	(+40.1%)	(+31.4%)
전체 출생아(B)	272,337명	260,562명	249,186명	230,028명	238,317명	254,457명
증감(%)	(-)	(-4.3%)	(-4.4%)	(-7.7%)	(+3.6%)	(+6.8%)
비율(A/B)	6.5%	8.1%	9.3%	11.6%	15.6%	19.2%

※ 출처: 지자체 제출자료 취합('26.4월), 국가데이터처('26.2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과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인해 난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확대*·추진**한 바 있다. 난임 지원을 통한 출생아 수는 2022년 23,122명(전체 출생아의 9.3%)에서 2025년 48,981명(전체 출생아의 19.2%)으로 3년 사이 난임지원 출생아 수와 전체 출생아 중 차지하는 비율 모두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해, 난임지원사업 출생아 중 12,749명(26%)은 다태아로 태어났고, 총 난임 시술 출산 건수(42,520건) 중 4,603건(10.8%)의 출산에서 미숙아**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및 연령기준) 2024년도 전면 폐지, (지원횟수) ‘부부당 25회’에서 → ‘아이당 25회’로 확대 등

** (미숙아) 임신 기간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 영유아

결혼연령의 상승과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체외수정 기준 평균 약 37%지만, 만 35세(여성 기준)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40세 이후에는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연령대 난임 시술은 다태임신이나 조산 등 고위험 임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바, 전문가들은 임신 성공률은 물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이른 나이에 임신을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가임력 검사 지원), 영구불임 예상 남·녀 생식세포 보존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지속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2025년 신청자가 크게 늘었고('24년 7.8만 명 → '25년 29.1만 명 지원) 수검 평균 연령도 낮아지는(여성 32.9세→32.3세(△0.6세), 남성 34.5세→34.1세(△0.4세)) 등 가임기 남녀가 임신과 출산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한 임신 준비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배포하여 가임기 생식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www.khepi.or.kr) > 자료실 > 홍보자료 > '건강한 임신 준비 가이드라인'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난임지원 출생아 증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2022년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건강보험 급여적용과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분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준비단계부터 난임 지원, 심리·사회적 지지까지 통합적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2.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044-202-3403)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일부 등을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 (사업경과 및 현황) '06년~ 계속사업, ('22년~ 지방이양)
-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 부부(소득 무관)
- (지원내용)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보편적으로 지원, '지자체는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지원
 - (범위) 인공수정, 신선배아·동결배아 체외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3종
 - (금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일부 비급여 약제
 - (횟수) 출산당 인공수정 최대 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 (지원절차)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 ①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25) 3개월 → ('26) 6개월로 연장하여 난임시술 대상자의 보건소 서류 발급 편의성 강화
- ② (지원기준)

구 분		지원 횟수 (출산당 25회)	건강보험 부담액(70%) (1회당 상한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회당 상한액)
체외 수정	신선배아 (300만 원)	20회	210만 원	110만 원
	동결배아 (120만 원)		84만 원	50만 원
인공수정 (60만 원)		5회	42만 원	30만 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배아동결비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 원 상한) 지원

□ **최근 5년간 난임진단자 수**

- (난임인구 지속 증가) 평균 초혼연령(아내) 및 평균 첫째아 출산 연령 상승으로 고령산모(35세 이상) 비율 증가 추세*

* (출산연령) ('14)32.0세 → ('24)33.7세(+1.7세), (고령산모비율) ('14)21.6% → ('24)35.9%(+14.3%p)

- **최근 5년간 난임진단자 증가**('20년 225,978명 → '24년 291,875명, +29.2%)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25,978	247,987	239,011	242,375	291,875
여 성	147,073	159,216	153,250	154,174	184,891
남 성	78,905	88,771	85,761	88,201	106,984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난임시술 지원 출생아 현황**

- '25년 전체 출생아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출생아는 **48,981명(19.2%)**

- 난임시술 출생아의 26.0%는 다태아로 출생(12,749명), 다태아 출생아 수는 증가('24년 대비 +2,882명)이나, 비율은 감소('24년 대비 Δ0.5%p) 추세

(단위 :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난임시술 출생아(A)	17,720	21,219	23,122	26,612	37,276	48,981
다태아(a)	5,678	6,607	6,631	7,367	9,867	12,749
비율(a/A)	(32.0)	(31.1)	(28.7)	(27.7)	(26.5)	(26.0)
총 출생아(B)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17	254,457
비율(A/B)	6.5	8.1	9.3	11.6	15.6	19.2

* 출처: 지자체 제출자료 직접 취합('26.4월), 국가데이터처('26.2월)

- 난임지원 출산건수 중 미숙아 등록건수는 **4,603건**, 비율은 **10.8%**

(단위 : 건,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난임지원 출산건수(A)*	14,842	17,872	19,774	22,992	32,286	42,520
미숙아 등록 건수(B)**	2,043	2,401	2,415	2,617	3,494	4,603
미숙아 등록비율(B/A)	13.8	13.4	12.2	11.4	10.8	10.8

* 출산 42,520건을 통해 48,981명(다태아 포함)이 출생

**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2.5kg 미만의 저체중아)